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2022. 12. 14 (수)



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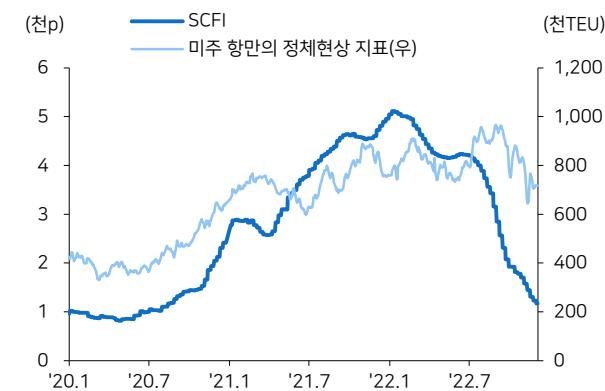
## 건화물운임(BDI)

1,357.0p(-4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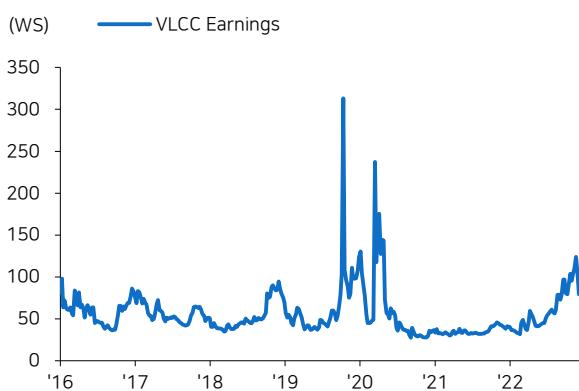
## 컨테이너운임(SCFI)

1,138.1p(-33.3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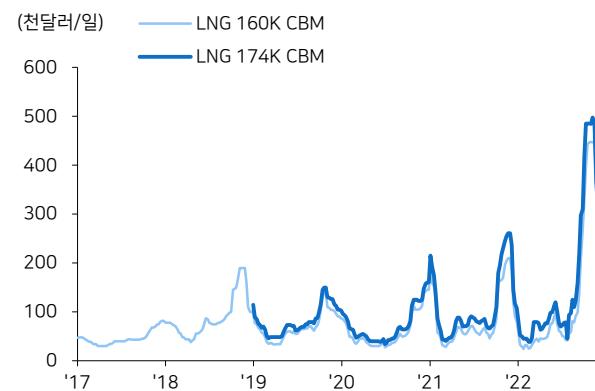


## VLCC Spot R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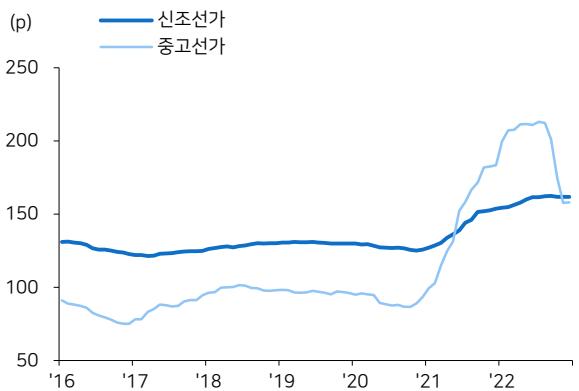
82.2p(+2.6p WoW)



## LNG Spot 운임

201.3p(-73.8p WoW)  
280.0p(-35.0p WoW)

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1.6p(-0.1p WoW)  
157.9p(+0.2p WoW)

## 항공시장 지표

254.4p(+4.5p DoD)  
97.2p(+0.7p DoD)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"빗장 열었다" 홍콩 입국자 방역조치 사실상 폐지

홍콩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적용해온 사흘간 식당 출입 금지 규정을 14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됨. 공공장소 입장 시 COVID-19 QR코드 앱의 사용을 14일부터 중단함.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제시야하함. (한국경제)

### 중국 '방역 통행증'도 폐지...마지막 국내 이동규제 해제

중국이 PCR 검사 음성 증명 의무 철회에 이어 '방역 통행증'도 폐지했다고 보도됨.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'5+3'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, 2023년 1월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자가격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짐. (연합뉴스)

### Libya lifts production force majeure in potential boost for crude tankers

리비아가 불가항력 선언을 해제했다고 보도됨.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최대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지만, 시위 영향으로 생산량이 400,000~600,000BPD 감소한 바 있음. 12월 9일 주 수출량은 평균 120만BPD를 기록함. 브로커 BRS는 생산량이 다시 확대되면 Aframax, suezmax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함. (Tradewinds)

### Maran Gas Maritime eyes up pair of LNG carrier options at DSME

Maran Gas Maritime이 대우조선해양에 예약해둔 LNG선 2척 옵션 발주를 2022년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됨. 옵션 총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, 나머지 2척은 2023년에 결정해도 된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

### Coming into view: Yards primed for Bay du Nord FPSO bid battle

Equinor가 94억달러규모 Bay du Nord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FPSO 입찰을 2023년초에 열 것으로 보도됨. 신조 FPSO는 2028~2029년부터 원유 약 200,000BPD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짐. FPSO hull FEED 입찰 초대장은 2023년 1월에 송부될 것으로 언급됨. 다년간 FPSO 건조를 연구해온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한 조선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됨. 2023년 2분기부터 시작해 2024년 2분기에 FEED 완성, 2024년 중 FID를 결정할 것으로 보도됨. (Upstream)

### Uzbekistan halts gas exports to China as winter demand spikes

우즈베키스탄이 겨울 수요 폭증으로 중국향 천연가스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보도됨. 영하 기온이 지속되면서 가스 소비량이 예상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함. 한편,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2022년 가스 수출량을 33억CBM으로 예상한 바 있음. (Upstream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